

[긴급요구]

수 신 :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

2020. 9. 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206)

제 목 : 김해관위원장 업무지원단 폐지 공약 이행 촉구

=====

1. 관 련

가. 김해관 위원장 후보 공약(2017년11월)

나. KT노동조합 규약 제10조[조합원의 권리]

2. 김해관 위원장은 2017년도에 KT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업무지원단 폐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3년차인 올해까지도 업무지원단 폐지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단체교섭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업무지원단에 소속된 우리들은 김해관 위원장이 업무지원단 폐지 공약을 즉시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별첨과 같이 연서명하여 제출합니다.

3. 업무지원단은 황창규 전 회장의 적폐경영의 상징이자 잔재입니다. 2014년 KT CEO로 취임한 황창규 회장이 8,304명을 강제로 퇴출하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현장과 격리하여 별도 조직을 만든 것이 업무지원단입니다. 업무지원단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불법감시와 통제는 지난 7년간 지속적인 문제를 낳아왔습니다. 올 해만 하더라도 경기지원1팀에서 직원들이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사무실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언론에 제보하자, 건물 관리 직원과의 사소한 갈등을 핑계 삼아 보복징계(정직 3월, 감봉 3월)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4. 전임 황창규회장은 재임기간 6년 동안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행위로 고발된 이래 정치자금법 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불법채용 의혹 등과 관련하여 십 수건의 고발조치 된 바 있습니다. 황회장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온갖 불법행위를 동원했고 이제 자신의 불법경영에 대한 단죄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KT에 남아있는 황창규 전회장의 적폐경영의 상징이자 잔재인 업무지원단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5. 우리는 김해관위원장이 2020 단체교섭을 통해 KT적폐경영의 대표적 산물인 업무지원단 폐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9월22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 업무지원단 폐지 촉구 조합원 연서명 1부. 끝.

업무지원단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조합원 일동(대표 이우현010-2667-5800)